

•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뵤뵤를 추천함

1 나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뵤뵤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2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뵤뵤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돕기 바랍니다. 이는 뵤뵤가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 바울의 문안 인사

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4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5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6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7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8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리스도볼로의 집안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1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깃수의 집안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2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3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14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르바,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5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6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은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 마음열기

한 주간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단하게 나눕니다.

• 말씀읽기

왼쪽 페이지의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 관찰하기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로마서를 뵤뵤 편에 들려 보내며 그녀를 성도들에게 추천하고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영접하라고 권면합니다(1-2절). 그리고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며 그들에게 일일이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1.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뵤뵤를 뭐라고 소개하고, 또 뵤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권면하나요? (1-2절)

2.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성도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나요? (3-4절)

• 답아가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동역자, 믿음의 가족은 누구인가요 오늘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 함께 나눈 기도제목들을 위해
- ②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17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에 역행해 분열을 일으키고 궤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18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19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 마지막 인사

21 내 동역자인 디모데와 내 친척들인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22 이 편지를 받아쓰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23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24 (24절 없음) 25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따라, 그리고 비밀의 계시를 따라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춰져 오다가 26 이제는 나타나게 됐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로 인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27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3 묵상하기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껏 배운 교훈들을 거슬러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며 궤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한 바울의 경고(17절)는 오늘 우리도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거짓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단을 비롯해 성경을 그럴듯하게 왜곡하거나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전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에,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완성해 가시는 비밀스런 계획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적용하기

세상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라(19절)는 말씀과 반대로,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더 빨리 반응하도록 우리를 자극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인내하고 용납하기보다 화내고 흥분하기를 더 잘 하지 않나요? 말씀 듣기를, 복음 알기를 더 사모하세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나를 자극하는 감정들이 아닌 진리의 편에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시다)

- ① 악하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것을 쫓는 세대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 ②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나요? 구원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나의 말로 분명히 전할 수 있나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한 자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녀이기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50장 (내 평생소원 이것뿐)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예레미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

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 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했습니다. 2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와 그의 집 뜰에 서서 여호와와 그의 집에 경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전하여라. 한 마디도 빠뜨리지 마라. 3 혹시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각자 그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킬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 행위의 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4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놓은 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5 또 내가 너희에게 되풀이해서 보냈으나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았던 내 종들,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6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고, 이 성읍을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7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백성

8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말했다. "네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9 왜 네가 여호와와 그의 이름으로 이 집이 실로같이 되고 이 성읍이 황폐하게 돼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느냐?" 그러고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그의 집에서 예레미야 주위로 모여들었다. 10 유다의 관료들이 이 일들을 듣고서, 왕궁에서 나와 여호와와 그의 집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와 그의 집의 새 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11 그러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관료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당신들의 귀로 들은 것처럼 그가 이 성읍을 대적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12 그러자 예레미야가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이 집과 이 성읍에 대해 너희가 들은 모든 말들을 예언하라고 하셨다. 13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의 행동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신 재앙을 마음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14 보라, 나는 너희 손안에 있다. 너희 생각에 좋고 올바른 것으로 내게 행하라. 15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는 죄 없는 피를 너희와 이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에 흘리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정 나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의 귀에 이 모든 말들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3 묵상하기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당시 백성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백성은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에 젖어 살다가 때가 되면 성전에 나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리를 다했다 착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거슬리고 불편하면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한 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전한 예레미야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타락하고 어긋난 가치관이 팽배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또 그대로 살아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나도 이 세대의 예레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4 적용하기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정한 기준과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고 말씀을 배우지만 정작 세상에서는 말씀의 기준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 안에서 바른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그러한 담대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곤란해질까 두려워 바르지 않은 것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었다면, 오늘 예레미야처럼 내가 지혜롭게 전할 말은 무엇이고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 ② 혹시 나도 말씀을 묵상할 때 불편한 말씀은 거르고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나요? 아프더라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귀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담대한 입술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관료들과 백성이 예레미야를 변호함

16 그러자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는 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17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모든 회중에게 말했다. 18 "유다 왕 히스기야 때 모레셋의 미가가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이 발처럼 경작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폐허 더미가 될 것이며 성전의 산이 숲의 높은 곳처럼 될 것이다.' 19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는가? 오히려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해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그들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 위에 큰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

• 여호야김 왕이 우리야를 죽임

20 여호와와 이름으로 예언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랴 여아림 출신이며 스마야의 아들인 우리야였다. 그는 이 성읍과 이 땅에 대해 예레미야와 같은 말로 예언했다. 21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들과 그의 모든 관료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해서 이집트로 갔다. 22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나단을 비롯해 몇 사람을 이집트로 보냈다. 23 그들은 이집트에서 우리야를 데려와서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갔고, 여호야김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들의 묘지에 던졌다. 24 그러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와 함께해 예레미야가 백성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됐다.

3 묵상하기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이 등장합니다. 과거 히스기야 왕은 예언자 미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와 앞에 엎드려 회개했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18-19절).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여호야김 왕은 회개는커녕 거슬리는 말을 한 예언자 우리야를 집요하게 찾아내 죽입니다(23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도 이처럼 엇갈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슬리고 불편하다며 거부하고 공격합니다. 나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혹은 사람들을 통해 나의 마음과 습관과 삶을 돌아보게 하실 때 겸손히 모든 것을 멈추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아프더라도 "아멘"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4 적용하기

같은 말씀에 대한 히스기야 왕과 여호야김 왕의 엇갈린 반응을 묵상하며 나의 태도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주님은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 혹은 사람을 통해 뼈를 때리듯이 나의 악하고 약한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말씀을 외면하거나 지적인 사람에게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고치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 또한 '여호야김 왕'처럼 거슬리고 불편한 말씀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요? 불편했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 ② 미가의 예언을 듣고 바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킨 히스기야 왕처럼 지금 이 순간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과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히스기야 왕처럼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바벨론을 섬기라

1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2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어라. 3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온 사신들을 통해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 왕, 시돈 왕에게 전갈을 보내라. 4 그 사신들에게 명령해 자기 군주들에게 전하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군주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5 내가 큰 능력과 펼친 팔로 땅과 땅 위의 인간과 짐승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주었다. 6 이제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내가 또한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7 바벨론 땅이 멸망할 때가 오기까지 모든 민족들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많은 민족들과 큰 왕들이 그를 정복할 것이다.

· 거짓 예언자에게 귀 기울이지 말라

8 그러나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거나 자기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숙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의 손으로 그들을 처벌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9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예언자들이나 너희의 점쟁이들이나 너희의 꿈꾸는 사람들이나 너희의 무당들과 너희의 마술사들에게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10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해 그 결과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11 그러나 어떤 민족이라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자기 목을 숙이고 그를 섬긴다면 내가 그들을 자기의 땅에 남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갈고 그곳에서 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3 묵상하기

3절에 등장하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은 유다와 연합해 강대국인 바벨론에 맞서 조국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힘 빠지고 이해되지 않는 명령인가요? 백성은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다니며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암울한 예언(2절)보다 애국심을 북돋우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마음이 더 기울었을 것입니다(9-10절). 그러나 백성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일으키신 것은 타락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며,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회복될 수 있음을 말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무시한 채 내 뜻과 감정을 만족시키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열심은 모두 헛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던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일인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모두가 맞는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껏 매달렸던 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순종하기 위해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노력과 열정은 모두 헛됩니다. 요즘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그저 내 뜻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노력'이 있지는 않나요?
- ② 나의 순종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버릴 것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많은 말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주신 말씀

12 내가 똑같은 말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주었다. "너희의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 숙이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13 왜 너와 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려는 민족에게 말씀하신 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 하느냐? 14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15 여호와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도,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도 다 멸망할 것이다.'"

·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주신 말씀

16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내가 말했다. "여호와와 이렇게 말한다. '보라. 여호와와 그의 기물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속히 돌아올 것이다'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17 너희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성읍이 왜 폐허가 돼야 하느냐? 18 만약 그들이 예언자라면 그리고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께 간청해 여호와와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 기둥들과 청동 바다와 받침대와 이 성읍에 남아 있는 다른 기물들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와 이렇게 말한다. 20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קים의 아들 여고니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갈 때 가져가지 않았던, 21 여호와와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와 이렇게 말한다. 22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내가 그것들을 돌아볼 그날까지 거기 남아 있을 것이다. 후에 내가 그것들을 가져와 이곳에 다시 둘 것이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3 묵상하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뼈아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항할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입니다. 이는 '매국노'로 몰려 온갖 핍박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세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반면,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자기 생각을 함부로 예언했고, 근거 없는 희망적인 예언으로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15-16). 지금도 그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람의 말들이 우리의 귀와 마음을 동시에 두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괜찮아", "잘 될 거야"와 같은 달콤한 말들에 안주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분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4 적용하기

"괜찮아", "잘 될 거야"와 같이 당장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들을 찾아다니거나, 나 또한 그런 말들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뜻 없는 위로와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입에 쓰더라도 회복되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하듯, 때로는 쓰고 아프더라도 뼈아픈 경고와 채찍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관심 없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모든 일이 잘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 ② 일상에서 감정을 자극하는 달콤한 조언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조언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입에 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 들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찬양과 기도

- 찬양 : 새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하나님의 거짓 예언** 1 그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4년 다섯째 달에 기브온 출신 예언자 앓술의 아들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했다. 2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릴 것이다. 3 내가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가져간 여호와의 집의 모든 기물들을 이곳에 다시 가져다 놓을 것이다. 4 또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5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했다. 6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빈다! 여호와의 집 기물들과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네 말을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빈다. 7 그러나 내가 네 귀에 그리고 모든 백성의 귀에 말하는 이 말을 이제 들으라. 8 너와 나 이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예언자들이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에 대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9 그러나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여호와께서 진실로 보내신 예언자로 인정될 것이다." 10 그러자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해 깨뜨리며 11 모든 백성 앞에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이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깨뜨릴 것이다.'" 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기 갈 길을 갔다.

• **하나님의 최후** 12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깨뜨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13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한다. 네가 나무 멍에를 깨뜨렸지만 그것 대신에 철 멍에를 만들 것이다. 14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철 멍에를 놓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또한 그에게 들짐승들도 주었다.'" 15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다. "하나냐여, 잘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시지 않았다. 그러나 네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다. 16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할 것이다. 올해 네가 죽을 것이다. 이는 네가 여호와에 대해 거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17 그해 일곱째 달에 예언자 하나냐는 죽었다.

• 말씀읽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최소 3번 읽기를 추천합니다.

• 묵상하기

말씀을 통해 '자백해야 할 죄, 붙잡을 약속, 순종해야 할 명령' 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아래에 적어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내면과 삶, 현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세요.

• 적용하기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을 만들어 보세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봅니다.)

• 기도하기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한 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